



열린마당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 대회 참가 단상

송두범 _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대회개관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2016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충남 당진시에서 해양문화학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2009년 목포(증도)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1년 삼척(울릉도, 독도), 2012년 2013년 여수(여수세계박람회, 금오도, 개도), 2014년 경주(동해안), 2015년 목포(흑산도, 홍도), 2016년 당진(내포, 난지도) 등 지금까지 7회 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서해양 종합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해양문화학자대회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200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연구소 과제로 선정되어 10년간 연구비 70억을 지원받아 섬의 '인문학 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론적 산업적 활용과 응용, 국내외 교류와 협력, 대학 및 시민교육, 토대연구를 통한 인프라 구축, 연구인력 양성 등의 효과 및 활용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7차례 개최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는 1,200여명의 학자들이 모여 1,200편의 도서해양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공유한 학술난장을 펼쳤다.

〈표 1〉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도시 및 주제

회수	개최연도	개최도시	주 제	현 장 답 사
1회	2009	목포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2회	2011	삼척시	이사부, 장보고의 해양활동과 독도	독도, 울릉도
3회	2012	여주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금오도
4회	2013	여주시	바다와 섬, 소통과 교류, 그리고 지속가능성	개도
5회	2014	경주시	해양실크로드와 항구, 그리고 섬	경주, 동해안
6회	2015	목포시	섬의 시대, 바다의 시대를 열다	흑산도, 홍도
7회	2016	당진시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굴포운하, 마도(안홍정), 안면운하, 충청수영성

올해 제7회 대회는 해양레저 및 산업도시인 충남 당진시에서 개최되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산학협력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후원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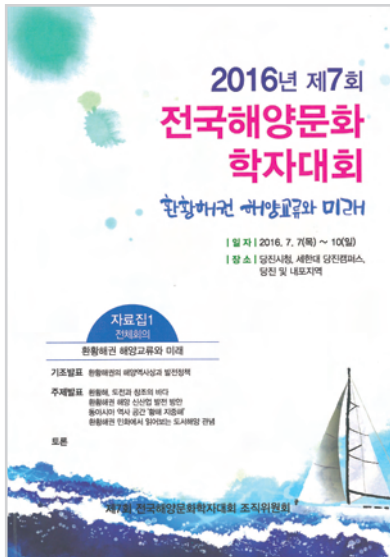
대회 첫째 날 대주제를 중심으로 전체회의 및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둘째 날에는 참가 신청자 전원이 발표하는 분과회의 및 융합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셋째와 넷째 날은 태안군 굴포운하유적과 마도, 안면운하, 보령시 충청수영성, 당진 소난지도 및 안국사지 등 내포지역 해양문화를 현지 답사하고 일부는 해양레저체험을 진행하였다.

개회식 및 주제발표



대회 첫 날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은 당진시장과 세한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해양수산부장관 및 충남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는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성과 발전정책 : 백제모델”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발제자는 동아시아의 역사는 해양과 직접 관련하여 발전해왔다고 전제하고, 한민족의 역사상 충청도를 국가의 활동공간으로 삼고 발전을 이룩한 정



치체는 백제이며, 백제는 국가의 발전과 쇠퇴, 멸망까지 황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백제는 황해와 접해 있어, 교류의 주된 상대가 중국이므로 해양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과 사비 모두 항구였지만, 해양과 더 가까운 사비성으로 천도하였고 동아시아를 넘어 서아시아 지역까지 이어지는 무역망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충남의 정책수립에 백제의 해양활동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두 번째는 세한대학교 최미순 교수가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 충남의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 거점 구축에 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2015년 7월 당진시 왜목항이 국가 거점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고항, 석문지구를 연계한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벨트 지정과 실천적인 계획들을 제안하고 있다. 당진 왜목항을

한중협력의 위한 미래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중국의 자본유치를 통해 300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 숙박 및 휴양시설, 수변상업시설 등 마리나항만 부대시설 개발을 충남 연안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발제자는 충남 연안의 많은 지역이 수도권 및 중국 등의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환황해권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벨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설뿐 아니라 해양문화,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강길모 박사가 “환황해권 해양산업 발전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하였다. 발제자는 충청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해양을 도정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해 2013년 해양수산업국을 출범시킨 것은 충청남도가 21세기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 10월 충청남도는 해양수산 정책추진 방향설정 및 국가정책 반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3대목표, 6대추진전략, 98개 단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중에서 충청남도 해양수산업과 관련한 과제는 총33개로 해양관광레저분야, 수산분야, 신산업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해양수산업과 관련하여 충남은 지리적 접근성, 우수한 해양생태자원,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추진하되, 정책추진과정에 마틴(Ben R. Martin, 2013)교수가 제시한 4가지 혁신아젠다(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혁신, 복지를 위한 혁신, 공정함을 추구하는 혁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권덕영 교수가 “동아시아의 역사공간 황해지중해”를 발제하였다. 발제자는 고대 동아시아 역사 속의 황해는 각 지역을 가르는 경계의 바다인 동시에 소통과 융합의 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즉,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을 지리적 지중해와 인문적 지중해라는 측면에서 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지중해와 마찬가지로, 황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와 교섭의 장으로 정치교섭과 문화교류, 경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열린 공간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황해는 버려진 역사의 장이 되었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황해를 망각의 늪에서 끌어올려 그것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다섯 번째는 목포대국문과 이윤선 초빙교수가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 보는 도서해양관념”을 발제하였다. 발제자는 민화 논의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고 민속학 측면에서 접근방향, 지역이나 테마적 관점에서 도서해양의 소재 혹은 주제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중 나아가 한문문화권의 동아시아에서는 공유하는 민화적 컨셉이 존재해 왔는데, 국가와 민족을 넘어 기호와 색깔, 신화들을 담아내는 기능들이 닮아 있다고 주장한다. 발제자는 이 소재들을 통해 국가가 하지 못할 일들, 금 그어 땅 뺏고 경제적 이득이라는 이름으로 경쟁하는 국가체제 말고 동아시아 민중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민화는 민중의 예술이고 또 그 꿈들이 담아낸 것들이 민화라면 민화가 가진 민족성이나 유교주의적 관점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재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민화에 들어 있는 해양관념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행복을 공유할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기조발제와 함께 4편의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관통하는 주제는 “황해”였다. 백제시대 이래 황해는 외국과 교류하는 유일한 통로였으나, 그 이후 망각의 바다였다. 남해와 동해가 산업화되고 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때도 황해는 침묵의 바다였다. 반면, 중국은 황해에 접한 지역과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그 성과를 서부로 확산시키고 있어 한국과 중국에서 대하는 황해의 위상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황해가 꿈틀거리고 있다. 발제자 모두 황해의 발전가능성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충남의 미래는 황해로 열어가는 해양 실�크로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분과발표

이번 대회에서는 총16개 분과(특별분과 6개)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총190편을 발표하였다. 분과회의는 오전 8개 분과, 오후 8개 분과씩 배정하여 발표하였고, 분과별로 좌장이 진행하였다. 좌장은 분과별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다음, 융합토론시간에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분과 구성은 유사한 주제로 구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과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지만, 여러 편의 발표를 통해 새로운 영역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유용한 방식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6개의 특별분과가 개최되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해양문화유산,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충남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대중국교류, 당진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사)한국해운물류학회에서는 당진항 활성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는 화성당성과 향해 실크로드를 주제로 분과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표 2〉 분과별 주제 및 발표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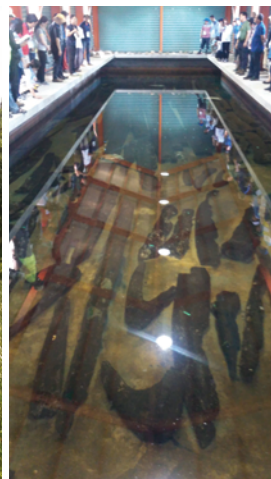
분과	분 과 주 제	발표편수	주 관 기 관
1분과	고대해상세력의 교류문화	13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2분과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제	13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3분과	한일간의 교역과 갈등	12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4분과	도서연안지역의 사회사	13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5분과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14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6분과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12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7분과	어촌사회와 어문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15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8분과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12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9분과	도서해양 생태자원	13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10분과	도서해양의 법과 정책	10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11분과	해양문화유산	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2분과	해양레저스포츠	16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13분과	대중국 교류	10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4분과	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10	당진향토문화연구소
15분과	당진항 활성화	4	(사)한국해운물류학회
16분과	화성 당성과 향해 실크로드	13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자료 :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일정표 및 자료집, 2016.

내포지역 해양문화답사

대회3일차에는 태안 및 보령일원에서 내포지역 해양문화 현장답사를 하였다. 굴포운하유적과 안흥정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보존센터, 안면운하, 충청수영성(계급장군청덕비), 소난지도, 안국사지, 복지곶 장군 사당 등의 순으로 답사가 이루어졌다.

첫 답사지인 굴포운하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도내리와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와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금은 천수만간척지로 인하여 지형변화가 심하나, 원래 그 폭은 불과 10리 미만이었으며, 늪지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0여리에 불과하였다. 굴포운하 공사가 시작된 것 고려 인종12년(1134년)으로 바닷길의 안전을 위하여 순수하게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우리 나라 최초의 운하공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정춘환 외, 2007:11).



그 후 굴포운하는 고려 공양왕3년(1391년), 조선태조 4년(1395년)과 태조6년(1397년), 태종12년(1412년), 세조2년(1456년), 중종16년(1521년), 현종9년(1668년) 등의 시기에 굴착을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굴포운하의 굴착은 암초가 발달한 위험한 해역을 피함으로써, 조운선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

로 추진되었다. 삼남의 세곡을 운반하는 뱃길가운데 태안반도의 안흥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곳이다. 안흥량은 개령이나 한양 어느 곳을 향하더라도 반드시 경유해야 했던 해역의 험로였다. 이를 피하기 위해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기 위해 굴착을 시도한 운하가 바로 굴포운하이다.

현재, 하천과 농수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은 경작지로 개간되었다. 굴포운한유적지에는 태안군에서 역사유적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함께 운하를 걸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보행데크를 설치하였다.

다음으로 답사한 유적은 남중국을 왕래하는 남방항로의 중요한 객관 중의 하나였던 안흥정이다. ‘고려도경’의 저자 서공은 송나라 서신의 일원으로 인종 원년 6월 고려에 다녀가면서 그 여행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서공이 묘사한 안흥정 주변의 지형은 ‘바다로 뻗어나가 여울물이 들끓어 오르는 모양이 기괴할 정도여서 감히 배가 암초에 부딪칠까봐 근접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고려도경에서 언급한 안흥정이 있었던 곳으로 공주대학교 윤용혁 교수는 거친 물살을 일으키는 바다로 뻗은 돌부리를 ‘마도의 남쪽 끝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또 하나의 작은 섬처럼 보이는 대섬(해발 53m)’으로 보고 있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오석민 박사는 관장목 해역의 속칭 ‘사자바위’ 또한 유력한 대상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흥정 위치를 놓고 역사학계에서는 태안군 근흥면 마도와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등으로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세 번째로 신진도리에 위치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보존센터를 방문했다. 태안군 해양에서 발굴한 마도 1, 2, 3호선 수중유물의 보존처리와 고선박 탈염 및 경화처리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에서 발굴되는 고선박과 수중유물보관 전시를 위한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을 태안보존센터 인근에 2017년 완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다.

태안의 마지막 답사지로 안면운하를 찾았다. 안면도는 원래 태안군 남면과 연육되어 있었으나, 조운의 편리를 위하여 조선 인조때(1645-1647)에 판목(창기리와 남면 신온리 접경)을 굴착하여 운하를 만듦으로서 안면곶은 육지에서 섬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이때부터 도선에 의하여 태안 및 서산의 육지와 교통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지만, 육지로부터 고립됐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는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기도 하였다(송두범, 2000 : 77).

2016년 현재 안면도의 면적은 113.5km², 인구는 11,860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섬이다. 섬의 서쪽은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2002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국도77호선 고남면 영목과 보령시 어항을 연결하는 교량 및 해저터널이 2017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대회3일차 마지막 답사지는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충청수영성이다. 충청수영성은 여말선초의 왜구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태조5년(1396년) 홍자해를 고만(高巒)의 첨사로 임명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충청수영이 언제부터 현재 위치한 보령시 오천에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충청수영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령편 관방조에 의하면 '정덕 경오년에 비로소 돌성을 쌓았는데 그 주위는 3,174척이며, 높이는 11척이고, 그 안에 4개의 우물과 1개의 못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황의호, 2016:47).

수영성 내에는 많은 영사건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영보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서 천하명승으로 알려져 있었고, 유명 관료문인들이 방문하여 많은 시문을 남기 호서의 절승이었다. 영보정은 1504년 수사 함천군 이량이 처음 축조했고, 1574년 수사 민진의 등이 보수하면서 지속되다, 수영폐지와 함께 없어졌는데 2015년에 복원하였다.

충청수영과 인접한 오천초등학교 내에는 1598년 4월에 세운 유격장군 계금의 창덕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9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격장군 계금은 중국 명나라 절강성 수군장으로 임진왜란(정유재란)때 3,000명의 수군을 이끌고 이곳 오천으로 상륙하고 전라도로 이동하여 왜군을 토벌하였다.

(사)보령문화연구회는 중국 절강성 태주시와 온녕시 등을 방문하여 계금장군 후손들을 만났고, 계금장군 후손들도 계금장군 창덕비를 찾는 등 계금장군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 역사문화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대회4일차 첫 일정으로 당진 소난지도 의병충을 답사하였다. 소난지도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도비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야한다. 도비도는 섬이었으나, 대호방조제를 축조하면서 육지가 된 곳이다. 도비도는 농어

춘공사가 1993년 충남도로부터 휴양단지로 승인받아 9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적자가 증가하면서 도비도 교육관, 해수탕 등 운영이 중지되었다. 현재 민자유치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도비도 선착장 인근 상가들은 활력을 상실한 모습이었으며, 그나마 섬주민들과 여행객들로 인해 부지런히 여객선들은 운항되고 있었다. 10분 정도 배를 타고 소난지도에 도착한 다음, 20분 정도 걸어서 의병의 유골을 합장한 의병총에 도달했다.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로 국권을 일제에 빼앗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홍일초를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벌였다. 백여 명에 달하는 의병들은 일본군에 쫓겨 충남 당진으로 건너와 소난지도에 집결하여 재기를 도모했으나, 정보를 탐지한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의병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석문중학교 신이균 이사장과 김부영 교장이 1973년 의병총을 보수정화하였고, 1982년 충남지사가 찬(撰)한 원문으로 비문을 새겼으며, 의병총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2008년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탑을 건립했으며, 이듬해 9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등록하였다. 2016년 6월 1일 소난지도 의병항쟁 110주년 기념 추모식이 거행되었다(김상기, 2016:54-55).





두 번째는 당진 안국사지 석불입상과 매향암각 유적을 답사하였다. 안국사지는 도비도에서 약5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버스가 들고 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안국산 중턱에 자리잡은 안국사는 사적기가 없어 창건연대기는 불명확하다. 2004년 발굴조사로 대평(大平)이라는 요(遼) 성종(1021-1030)의 연호가 새겨진 기와조각이 발견됨으로써 최소한 고려 현종 10년(1030) 거란이 3차에 걸쳐 고려를 침범했을 때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지은 호국사찰로 추정하게 되었다.

경내의 오른편 산기슭에 삼존석불입상(보물 제100호)과 석탑(보물 제101호)이 오롯이 서있다. 안국사지의 대표적 유적인 삼존석불입상 중 본존불은 약5m 높이로서 머리는 원통형이고, 얼굴은 4각형으로 널찍하다. 안국사지에서 가장 의미 있는 유물은 석불입상 뒤편에 긴 타원형으로 높인 바위인데, 고래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래바위’라고도 하고, 또 베를 찌는 베틀에 딸린 북처럼 생겼다고 해서 ‘북바위’라고도 한다. 고려말기인 1330년에 매향¹⁾비를 새긴 것을 알게 되어서 안국사지 매향암각(충남도 지정 기념물 제163호)이라고 한다(이경복, 2016:59-60).



1) 본래 매향(埋香)이란 고된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이 내세에 부처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극락을 이루어주기를 기원하는 미륵신앙의 하나로서 향나무에 염원을 적어서 땅에 파묻는 것인데, 그 향나무가 다시 땅위로 올라와서 향불로 타오르는 날 세상의 변혁을 가져온다고 믿으면서 고단한 현실을 극복했다고 한다. 따라서 매향은 불교사상이자 혁명사상과도 결부되는 민중의 염원이다(이경복, 위의 책:61).

이번 대회 마지막 일정은 당진시 면천면 출신인 당(唐) 유민의 후손 복지검 유적을 답사하였다. 복지검은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를 건국하였고, 환선길의 모반사건에서도 공을 세웠다. 면천면에는 복지검에 얽힌 전설로 아미산 진달래로 빛은 두견주(중요무형문화제 제86-2호)와 복지검의 따님이 심었다는 은행나무는 면천초등학교 교정에 남아 있고,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당진시 순성면 양유리에 가묘와 사당이 있다. 당진시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32억원을 투입하여 복지검 장군 묘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강경윤, 2016:62-66). 이상의 일정을 끝으로 이틀간에 걸친 내포지역 해양문화답사를 마무리 하였다.

충남의 해양문화에 대한 시사점

충청남도가 도 청사를 홍성 예산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경부축에서 서해안으로 개발축 이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충남이 환황해권 중심자치단체를 표방하고, 황해를 디딤돌로 세계로 비상하기 위한 환황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진시가 전국해양문화학자를 개최한 것은 해양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를 공동주최한 충남연구원과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충남의 해양문화발전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학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오랜 시간동안의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문화는 해양교류문화, 해양생태, 해양산업, 도서문화, 해양민속, 해양문학, 해양푸드,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어촌어항, 항만, 항구해양법 등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학제적으로 융복합되는 체계적인 연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나 연구원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정책적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진시의 해양문화학자대회는 충남의 해양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해양의 중요성과 활용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청남도는 환황해권 지중해구상, 해양수산물 설치 등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자치단체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충남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갯벌, 머드, 도서, 해수욕장, 수목원, 어촌어항, 사구 등의 해양자원과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치단체로서 해양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향후 이러한 해양자산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특성화, 수산물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해 외부방문객을 유인하고 지역의 매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태안 마도에서 인양한 해중

유물들을 보존처리하여 신진도에 전시되면,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은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인지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황해를 통해 중국인들이 유입하게 되면, 그들에게 충남의 어떤 것들로 감동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서산 대산항과 위해 룡안항간의 여객선이 취항을 하게 되면, 많은 중국인들이 충남으로 입국할 것이다. 충남을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백제시대 이래 중국과 교류했던 역사의 현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하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보령 충청수영성의 계급장군 청덕비와 같은 유형의 자산 뿐 아니라 구전되는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연극이나, 뮤지컬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충남의 해양문화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국에서 300여명의 해양문화 학자들이 내포문화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충남의 해양문화유산을 가슴으로 접해보았다. 한정된 시간으로 곳곳에 산재한 더 많은 해양문화유산들을 보여 줄 수 없었던 것이 아쉽지만, 향후 이들이 충남의 해양문화를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다섯째, 충청남도가 해양레포츠의 적지이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자본을 활용하여 왜목마을과 장고항을 중심으로 마리나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리나항은 단순히 요트가 입출항하는 기능뿐 아니라 국제교류, 마이스산업, 수화물 유통거점 등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민소득의 향상과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이들이 해양레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충청남도가 마리나 항만 개발구상을 마련한 것도 해양레포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되었으나, 지역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 논의의 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해양문화학자대회가 국가 인문학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다 보니, 이론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더라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러한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해양학자대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치열한 논의의 장을 기대해 본다.

일곱째, 해양문화를 연구하는 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와 각시군은 해양문화 관련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해양문화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물과학원, 충남연구원,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해양관련 대학교 등과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3박 4일간 당진시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해양문화화학자대회를 정리해보았다. 충청남도과 당진시가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해양문화화학자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필자는 이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육지중심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왜 충청남도가 해양지향적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머리와 가슴으로 확인하였으나 해양문화에 기반한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은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경윤. 당 유민의 후손 복지겸 이야기. 제7회전국해양문화화학자대회 일정표 및 답사 자료집. 2016.
- 김상기. 당진 소난지도 의병항쟁, 전국최초의 해전 항일운동으로 기록된다. 제7회전국해양문화화학자대회 일정표 및 답사 자료집. 2016.
- 송두범. 송림과 바다가 어루어진 넉넉한 육지의 섬, 안면도, 우리시대공간읽기 17.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0.
- 오석민. 태안군 안흥량 뱃길과 관련 유적. 제7회전국해양문화화학자대회 일정표 및 답사 자료집. 2016.
- 이경복. 당진 안국사지 석불입상과 매향암각. 제7회전국해양문화화학자대회 일정표 및 답사 자료집. 2016.
- 정춘환 · 오석민 · 송두범 · 한상욱.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기획연구 2007-12. 충남발전연구원. 2007.
- 제7회 전국해양문화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제7회전국해양문화화학자대회 자료집 제1권. 2016.
- 황의호. 충청수영성과 역사, 그리고 유격장군계공청덕비. 7회전국해양문화화학자대회 일정표 및 답사 자료집. 2016.